

손흥민, 네 골... 역사를 쓰다

2020-2021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사우샘프턴전...5-2 승 이끌어

애틀 EPL 한 경기 최다 득점

해리 케인 4도움 '찰떡궁합'

'기록의 사나이' 손흥민(28·토트넘 홋스퍼)이 아시아 축구의 유럽 무대 도전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겼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27)과 '찰떡궁합'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역사의 한 페이지도 새로 수놓았다.

손흥민은 20일(한국시간) 치른 사우샘프턴과의 2020-2021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4골을 몰아넣고 토트넘의 5-2 역전승을 이끌었다.

이로써 손흥민은 토트넘에 입단한 2015년 8월 이후 5년 만에 EPL 경기에서 첫 해트트릭을 달성하고 자신의 정규리그 한 경기 최다 득점 신기록도 세웠다.

아울러 아시아인으로 EPL 한 경기 최다 득점을 기록했다.

EPL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아시아 선수도 일본의 가가와 신지(31·레알 사라고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이던 2013년 3월 2일 노리치시티를 상대로 세 골을 터트린 데 이어 손흥민이 두 번째다.

손흥민이 4골을 넣으면서 케인도 리그 역사를 새로 썼다. 케인은 이날 손흥민의 4골을 모두 도왔고 직접 한 골을 넣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EPL 단일 경기에서 한 선수가 넣은 4골을 모두 도운 선수는 케인이 최초다.

즉, 손흥민은 EPL 단일 경기에서 같은 선수로부터 4도움을 받아 4골을 기록한 첫 번째 선수가 됐다.

EPL 경기에서 한 선수의 해트트릭을 모두 도운 것도 2003년 5월 아스널의 티에리 앙리가 선덜랜드전에서 프레드리크 용베리의 세 골을 어시스트한 이래 17년여 만이다.

케인은 또한 EPL 한 경기에서 4도움을 올린 여섯 번째 선수이자 첫 번째 잉글랜드 출신 선수로도 이름을 올렸다.

BBC는 "케인은 지난 시즌을 통틀어 리그에서 2도움을 기록했다"면서 "그러나 이날 후반전에는 거의 모든 패스가 손흥민의 득점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고는 이어 "(레알 마드리드에서 임대 영업한) 개러스 베일이 가세한다면, 토트넘은 세계 최정상급의 스리톱 공격진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흥민(28)의 '특급 활약'에 현지 언론도 찬사를 보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인터넷판은 "손흥민과 케인이 무대를 장악했다"면서 "이들은 '텔레파시'라고 주고받은 듯한 완벽한 플레이로 사우샘프턴의 높은 수비라인을 부숴냈다"고 평했다.

영국 스포츠는 "'손흥민이 4골을 몰아치는 경이적인 플레이를 펼쳤다'고 찬사를 보냈다.

대중지 '미러'는 "'토트넘의 한국인 스타가 4골을 터뜨리는 엄청난 쇼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증명했다'고 썼다.

글로벌 매체 EPSN은 "손흥민이 훌륭한 침투로 사우샘프턴의 수비 뒷공간을 허물었다"면서 "다른 선수가 아무리 엉망으로 뛰어도, 조제 모리뉴 토트넘 감독에게는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공격수가 있다"고 호평했다.

손흥민 소속팀 토트넘은 23일 오전 2시(한국시간) 영국 런던 레이턴의 브리즈번 로드에서 열리는 2020-2021 카라바오컵(리그컵) 3라운드에서 리그 2(4부) 팀인 레이턴 오리엔트와 맞붙는다.

/연합뉴스

'괴짜' 디셈보 US오픈 정상

'근육맨' 브라이슨 디셈보(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US오픈 정상에 오르며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디셈보는 21일 미국 뉴욕주 매머락의 윈드풋골프클럽(파70·7459야드)에서 열린 제120회 US오픈 골프대회(총상금 1250만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2개,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6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디셈보는 2위 매슈 울프(미국·합계 이븐파 280타)를 6타 차로 크게 따돌리고 225만달러(약 26억원)의 우승상금을 차지했다. 디셈보의 PGA 투어 통산 7번째,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이다.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컷을 통과한 임성재는 최종합계 9오버파 289타로 22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20일(현지시간) 영국 사우샘프턴의 세인트 메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샘프턴과의 20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에서 2번째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피말리는 순위 싸움...마운드는 응답하라

T 타이거즈 전망대

■ KBO중간순위 (21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NC	110	65	3	42	0.0
2	키움	117	67	1	49	2.5
3	KT	111	63	1	47	3.5
4	LG	113	62	3	48	4.5
5	두산	112	59	4	49	6.5
6	KIA	109	59	0	50	7.0
7	롯데	110	56	1	53	10.0
8	삼성	112	50	2	60	16.5
9	SK	114	38	1	75	30.0
10	한화	112	32	2	78	34.5

이번주 키움·KT·롯데와 격돌...잇단 부상·엇박자 불펜 살아나야

끝을 알 수 없는 순위 경쟁이 KBO리그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점입가경'의 순위 싸움을 앞두고 KIA 타이거즈 마운드에 눈길이 쏠린다.

KIA는 새로운 한 주 키움 히어로즈, KT 위즈, 롯데 자이언츠를 만난다. 22·23일 안방에서 키움을 상대하는 KIA는 이어 KT 안방으로 가서 2연전을 치른다. 이후 광주로 돌아와서 롯데와의 주말 2연전에 나선다.

가장 눈길이 쏠리는 대결은 바로 수원에서 열리는 KIA와 KT의 2연전. 순위 싸움의 키를 쥔 두 팀의 만남이다.

KIA와 KT는 뜨거운 9월을 보내고 있다. KIA가 지난주 불펜 난조 속 3승 3패에 그쳤지만

9월 11승 5패, 0.688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분위기로는 KT가 더 뜨겁다.

KT는 최근 5연승을 달리는 등 9월 14승 4패(승률 0.778)의 전적으로 단독 3위까지 치고 올랐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도 KIA가 밀린다.

KIA는 키움과 롯데에 각각 6승 5패, 9승 4패로 앞서있지만 KT에는 5승 7패로 뒤져있다. 발목잡는 '불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KIA는 16일 9회초 2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7 역전패를 당했다. 20일 한화전에서도 팽팽하던 경기 7회 불펜 난조에서 흐름이 같았다.

불펜의 부상과 엇박자가 겹치면서 KIA의 가장 믿음직했던 전력이 가장 불확실한 전력이 되고 말

았다.

전상현과 이민우의 컨디션이 마운드 정상화의 관건이다.

예상보다 전상현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키움과의 2연전 기간 전상현의 몸상태를 점검하고, 마운드 피칭 후 복업을 결정할 방침이다.

결막염으로 선발 등판을 거른 이민우의 몸상태도 마운드 구성의 변수다.

KIA는 터커-최형우-나지완의 꾸준한 활약 속 톱타자 최원준의 뜨거운 질주로 공격에 힘을 더했다. 김태진도 하위타순에서 패기 넘치는 플레이를 해주며 타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고른 타선의 움직임 속 불펜이 순위 싸움에 힘을 보태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고려대 투수 박건우 1라운드 지명

2021 KBO 신인 지명회의

우완정통파·부드러운 투구폼

투수 4·포수 2·외야 1 등 10명 선택

김기태 전 감독 아들 김건형 KT행

광주 동성고 프로선수 6명 배출

총 10명을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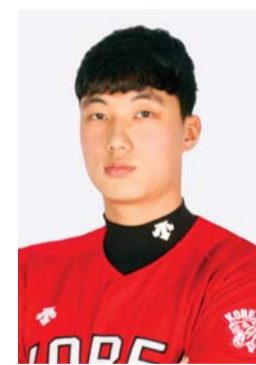
덕수고 출신의 박건우는 193cm·96kg의 다부진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최고 148km의 빠른 공을 던지는 우완정통파다. 부드러운 투구폼과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이 장점이다. 아마 야구를 주름잡았던 박노준 안양대 총장의 조카이기도 하다.

2라운드에서는 장민기(용마고·투수)를 뽑았다. 182cm·85kg의 장민기는 140km 중반대 빠른 공을 던지는 좌완투수로 불펜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3라운드의 영동대 투수 이승재(182cm·82kg)는 최고 시속151km의 묵직한 직구가 강점인 우완투수로 빠른 슬라이더까지 보유한 불펜 즉시 전력감이다. 4라운드 지명선수인 신일고 포수 권혁경(우투우타)은 188cm, 100kg의 신체 조건과 월등한 파워가 장점이다.

KIA는 이어진 라운드들 통해 이영재(유신고·외야수), 김원경(비봉고·내야수), 장시현(충암고·내야수), 이준범(동성고·내야수), 김선우(강릉고·포수), 박대명(동성고·투수)을 지명했다.

투수 출신의 외야수 이영재는 강건의 중장거리형



박건우



김건형

타자, 김원경은 타격 센스와 파워가 뛰어나 거포 내야수 자원이자다.

우타거포 이준범은 1루수 자원으로 성장가능성에 집중했고, 김선우는 올 시즌 강릉고의 우승을 이끈 '우승포수'이자 거포 타자다. 140km 초중반대 공을 던지는 박대명은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지역 패싱'이 이뤄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 시즌 KIA는 두 명의 지역 선수에게 고향팀 유니폼을 선물했다.

김기태 전 감독의 장남인 외야수 김건형(미국 보이스주립대)은 해외파 트라이아웃을 거쳐 KT에서 대를 잇게 됐다.

동성고에서는 이준범과 박대명을 포함해 모두 6

명이 선발돼 눈길을 끌었다.

'에이스' 김원경과 '거포 외야수' 최성민이 나란히 KT 지명을 받았고, '안방마님' 김시양은 키움에서 프로 데뷔를 준비한다. 고려대 졸업을 앞둔 내야수 이재홍도 '운명의 탑' 키움으로 간다. 이재홍은 2016년 키움의 10라운드 지명을 받았지만 실력을 키우기 위해 대학에 진학했었다.

동성고 김재덕 감독은 "감독 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선수가 지명받았다. 다들 축하한다. 지명회의를 지켜보는 내내 긴장했다. 특히 가장 마지막에 지명 받은 박대명은 좋은 실력에도 부상으로 올 시즌 마을고생을 많이 했던 만큼 더욱 기쁘다"며 "정통기 때 우리 선수들이 자신 있게 실력을 보여준 게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야구 명문' 광주일고에서도 두 명의 프로 선수가 추가됐다. '특급포수' 조형우와 동강대에서 칼을 간 '강속구 투수' 조경호가 나란히 SK로 간다. 특히 조형우는 SK 2차 1번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2013년 창단한 정읍 인성고는 첫 프로 선수를 배출했다. 포수 박제범이 SK 9라운드 선수로 프로 꿈을 이루면서, 인성고는 2020 전국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반기 대전총정권 우승에 이어 또 다른 역사를 맞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